서양경제사

1. 장기 경제 성장

* 맬서스의 덪이란 무엇일까? : 산업혁명 전까지는 경제성장이 크지 않았는데, 이 **박스권**을 경제학자 맬서스의 이름을 따 “맬서스의 덪” 이라고 한다. 그런데 산업혁명은 모든 국가에 고르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득을 본 국가가 있었고, 그렇지 않고 더 않좋아진 국가들이 있었다.
* 이를 간단한 모형을 통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출생률”, “사망률” 및 “물질적 삶의 수준” 을 통하여 알아볼 것인데 여기에서 “물질적 삶의 수준”은 총소득을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소득’이다.
  + 먼저 인구가 증가하면 1인당 소득을 줄어들게 되니 삶의 수준은 감소할 것이고, 인구가 감소하면 1인당 소득이 증가하게 되니 삶의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출생률이 증가하고 사망률이 하락할 것이다.
  + 소득이 균형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출생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사망률이 낮아지게 되고, 물질적 삶의 수준이 하락하게 되는 수준이 될 수 있고 이것들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 사망률이 다시 높아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하락하게 되어 사망률은 다시 높아지게 될 것이다.
  + 반대로 소득이 균형 이하의 상태라면, 사망률이 더 높아지고 출생률이 더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1인당 몫은 계속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1인당 삶의 수준이 증가함으로써 출생률이 증가하는 수순이 될 것이고 다시 앞의 수순을 밟을 것이다.
  + 이것을 **“전쟁, 질병, 위생 습관의 후퇴 및 모유 수유의 포기 등”**의 앞서 첫번째의 사례에 대입한다면, 이것은 곧 1인당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물질적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수준이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기술의 진보, 개인 위생의 개선, 공공 위생의 개선, 수확 감소에 대한 공공 부조 및 평화 등”**은 사망률을 낮춤으로써 물질적 삶의 수준을 낮추는 현상이 될 것이다.
  + 그 다음으로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논의에서는 더욱 우울한 상황을 가져올 것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토지 규모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생산 기술이 진보하게 되면 한정된 양에서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므로 이는 더욱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생산량이 될 것이고 이는 곧 3번째 항목의 우울한 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 애덤 스미스와 칼 막스의 전통적인 논의
  + 애덤 스미스는 분업, 전문화 및 무역에 의한 상업사회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분업과 실행을 통해서 학습과 실천의 경제를 통해서 전문화를 증가시키는 것을 주장하였고, 주어진 자원과 기술의 차이점을 통하여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증가시키는 것을 주장하였다.
    - 스미스는 핀 공장의 사례를 통하여 **장인이 하루에 20개를 생산하던 것을 분업을 통하여 최대 4만 8000개의 핀을 생산하는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스미스는 핀공장의 분업에서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분업이 일어나는 거대한 작업장으로 이해하였다.
    - 이것을 통하여 각 개개인이 전문화된 작업을 하고, 이를 통하여 기회비용의 차이가 일어나서 이것들을 이용하여 가치를 교환할 수 있다는 이득을 취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 애덤 스미스의 분업화 주장을 앞서 언급한 인구 생산량에 대입한다면 어떨까?
    - 식량과 옷 모두를 만드는 가게가 있다라고 해보자. 식량 생산으로 전문화되는 직업 및 직종이 만들어질 것이고, 식량이 많이 생산된다고 한다면 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옷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옷의 수요를 수용할 직종과 직업이 만들어질 것이고 옷을 생산하는 가계가 늘어날 것이다.
    - 이를 통해서는 한 나라의 인규 규모와 내수 시장의 크기가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 칼 막스(Karl Marx, 맑시스트)는 사회를 구조론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 사회를 상부구조(정치, 법, 국가, 종교 등)와 하부구조(생산력과 생산관계)를 나누어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서 **“경제가 사회를 떠받히고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었다. 하부구조의 생산력이라 함은 **“노동하는 인간이 생산 수단을 이용해 물적 제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회 전체의 총체적 능력”**을 의미하고 생산관계라 함은 **“물적 재화의 생산, 분배, 소비의 행태를 둘러싼 인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생산 관계는 직접 생산자가 생산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구분하여 규정하여 이를 **계급**으로 나누었다.
    - 막스는 **생산양식**(생산**력**+생산**관계**)이라는 것을 만들어 1)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괴리가 발생하면 생산 양식이 교체 2) 생산 양식에 따라 생산시대를 구분 지었다.
      * 막스의 “생산 양식에 따라 시대를 구분” 한다는 것에서 더불어 표현하면 원시공동체 -> 노예제 -> 봉건제 -> 자본주의 의 순으로 변하였을 것이다.
      * 자본주의 시대에 도달했다 함은, 1) 상품 생산이 **“시장 판매 및 이윤을 위한 생산”**이 되었고 2) 사회적 분업이 발달하고 대규모 공장이 세워졌다 함은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이 되었고 3)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대립관계”** 이 나왔음을 나타낸다.
  + 현대적 논의는 어떻게 될까?
    - 신고전파 경제학(아담 스미스와 칼 막스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역사적인 데이터를 가져와서 현대적인 계량분석을 통하여 계량경제학이 탄생하게 되었고, 통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반사실분석”을 시작하게 되었음.
    - 앞서 언급한 맬서스의 체계에서 벗어나 탈 맬서스 체제(1인당 소득 증가, 1인당 소득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이 양의 관계)를 만들고 더 발전하여 근대적 성장 체제(1인당 소득 증가, 생산량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이 음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 교육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더 높은 기술 수준이 상승하게 됨으로써 “근대적 생산 체계” 단계에 돌입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인구 증가가 정체되고, 인구 자본을 축적하게 될 것이고, 기술이 증가할 것이다.
  + 왜 모든 나라가 성장하지 못했을까?
    - 아직까지 모든 국가의 경제 성장 과정이 동일하지 않다. **(지리, 문화, 기술)**
      * **지리**적 문제일 수도 있다. 아프리카는 말라리아와 같은 것들 때문에 전염병이 퍼지고 이 때문에 인구성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반대로는 영국의 석탄 채굴 비용이 정말 저렴해서 영국이 더욱 산업혁명을 가속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진보는 지리적 위치의 불리함을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지리적인 문제가 완벽히 맞다라고는 할 수 없다.
      * **문화**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어떤 문화는 다른 문하에 비해 저축, 혁신, 위험 감수, 근면함을 길러내는 데 유리할 수도 있으나 정작 문화는 수백년에 걸쳐 변화하지만 경제는 몇 십년 사이에 극적으로 변화하였다. 문화적 차이는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말하고, 어떤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 부존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다.
    - 앞서 언급한 지리, 문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국가의 제도적인 문제가 그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 노스는 근대 국가의 발전 또는 경제 성장은 근대적 제도의 확립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제도는 경기 규칙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거래비용(Transaction)을 줄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 제도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은행과 금융 제도의 발달을 통하여 자본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중 교육 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정부의 통치력을 통하여 계약 이행을 보호할 수 있고, 사적 소유의 규제를 통하여 공동 소유의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 효율적인가는 동적인 개념이고,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결론은 제도와 기술을 비경합적이다. 어떤 행위자가 특정 제도나 특정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다른 행위자가 같은 제도나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제도나 기술을 모방할 수 있고, 동시에 누구나 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함.

1. 전기봉건사회

* 유럽 봉건 사회
  + 유럽 봉건사회는 대략 1000년의 기록(476~1,500년경까지)을 가지고 있다.
  + 고대 로마제국 질서의 봉괴가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고 이를 틈타 게르만의 서유럽 지배로 이어지기는 했으나 곧바로 게르만이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이 중에서 가톨릭 교회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리스 로마 문명의 유산을 중세로 전달하였고, 통일된 신념을 제공하는 곳이였기도 하였다.
* 전기봉건사회
  + 3-6세기: 게르만 공동체, 농노제

7세기 이후: 세레산 제국, 지중해 폐쇄, 유럽 세계의 형성

8-9세기: 서유럽 농노제(고전장원) 성립

* + 봉건적 위계질서가 성립되었는데, 군주 – 영주 – 농노/농민 체계의 위계질서가 성립되었고, 토지를 받고 토지를 보장하는 충성 및 군사적인 임무를 받게 되었다. (봉토적인 관계)
  + 봉토라 함은 로마와 게르만족의 군사적 은대지에서 기원되었고, 영주는 국왕의 과세권과 제판권으로부터 벗어나 토지와 농민에 대한 독립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특히 조세징수권과 치안경찰권 및 **영주제판권**을 행사하였다. 영주는 봉토내에서는 군주의 간섭이 차단된 특권적인 지배자였고, 단순한 재산소유가 아니라 봉토내의 공적 권력 보유를 의미한다.
  + 농노제도를 통하여 영주는 농노와 농민들에게 지대와 토지를 배급하고 이에 더불어 인신지배권을 부여하였다. 영주는 이를 통하여 경제외권에 대한 강제성을 가지게 되었고, 농민들은 노예와 자유농민을 나누어 구분하는 유동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이들은 불확정적인 토지 소유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들이 생산한 것은 위 계급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일주일에 2-4일과 각종 임시부역도 포함하여 자신의 노동도구로 부역노동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특산품, 인두세, 십일세, 결혼세 등을 공납하였다.
*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 정치적 환경
  + 서로마 제국들이 멸망함에 따라 외부 세력(바이킹, 마자르 및 무슬림)이 침공하게 되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성채, 중무장 기사 및 위계적이고 탈중앙화된 봉건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소유지를 유력자에게 넘겨 보호를 받고, 토지 이용권을 확보하였고 반대로 영주의 보호와 이용권에 대한 보상으로 노동력과 공물을 제공하는 관계가 형성하게 됨으로써 지역 질서가 부활하고, 장원이 확되되게 되었다.
  + 북서유럽은 많은 비와 울창한 숲 그리고 비옥한 토양등을 통하여 가축과 곡물 생산에 유리하였고, 지중해 일대는 계절성 기후를 가지고 있었고, 땅이 비옥하지 않았고 이를 통하여 포도, 올리브 및 기타 곡물 생산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 지리적인 환경을 통하여 장원은 단위로 자급자족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교환경제와 연결되지 않았고 **촌락-경작지-공유지** 와 같은 공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 앞서 언급한 공간적인 구조에 따라, 촌락이 형성되면 장원청이 생기고 이를 중심으로 공공시설이 생성되었는데 농민은 공공시설을 설립 및 운영을 금지하는 금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집단적인 촌락을 이루고 있었다.
    - 경작지에서는 영주직영지와 농민분할지에 농노와 농민들이 가서 일을 해주는 구조이고, 장원의 외곽지대에 개인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에 농민들에게 공유지 이용권을 부여하여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였다.
  + 경작 방법 및 경작 경제
    - 밀을 경작하면 지력 감퇴가 심해서 쟁기로 땅을 깊게 일구거나 휴경이나 비료를 투입함으로써 밀 지력 감퇴에 대응하였고 목축과 병행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휴경이나 재배에 대한 문제를 피하였다.
      * 이를 통하여 **유제품**과 **육식 문화**를 만들었다.
    - 삼포식 농법: 춘경지 – 추경지 – 휴경지를 나누어 3번 농사를 지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밀에 지력감퇴를 피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이용하였다.
      * 8세기 이전에는 이포식 (밀 – 휴경지) 방법을 사용하였고 지역적 차이에 따라 이포제와 삼포제를 사용하였다.
    - 경작지 경영에는 소농적 경영과 공동체적 평등 원리가 작동하였는데, 토지분할에 대한 평등원리를 부여하였고 지대를 구분하여 공평하게 토지를 분할하였다.
      * 공동체적 유산과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휴경시 공동 방목지를 촌락 성원에게 개방하는 “개방경지제”라는 것을 시행하였고, 직영지와 분할지를 혼재하여 경작하는 “훈재경지제”라는 것을 시행하였고, 농사력에 따라 촌락공동체가 규제하는 “경작 강제”를 시행하였다.
  + 상업 루트
    - 동방이 교역하였는데, 먼저 카롤링거 왕조와 콘스탄티노폴이 교역하기 시작하였고, 8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다뉴브 강과 엘베 강 연안에 있는 슬라브족을 중심으로 교역하기 시작하였음. 여기에서는 향료와 귀금속 및 노예를 교환하기 시작하였고, 지중해 교역의 대체였음. 그러나 고대와 비교했을때는 파피루스와 향료의 교역이 급감하였다.
    - 북방은 북해와 발틱해 연안의 바이킹을 중심으로 교역하기 시작하였음.
  + 시장
    - 지역 시장은 소규모 주간 시장이 중심이였고, 슬라브족이 물물교환을 중심의 교역을 하였다. 아울러 농민의 부업 활동 생산물이 중심이 되어 거래하기 시작하였음.
    - 파리 근처의 샹파뉴 유명한데 이 지역에서는 장기적 시장을 개최하여 일년에 한달 정도 개장하였고, 여기에서는 앞서 언급한 동방 및 북방루트를 통하여 모은 생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하였다.
    - 유태인들이 각 지역을 유랑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유랑상인이 있었는데 이 상인들은 영주층과 교회의 고급 사치품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1300년경까지 무역은 유랑 상인에 의해 의존하였다.
      * 십자군 전쟁이 발발해 북서유럽 세력의 지중해 진출을 통하여 상업이 부활하였고, 1300년 이후 유랑상인이 쇠퇴하였고 무역이 확대되었다.

1. 후기봉건사회

* 개략적인 연표:
  + 1077년 교황이 왕권에 우위에 들음 (카노사의 굴욕을 통하여)
  + 11~12세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 상업이 부활함.
  + 14세기 이상기후, 흉년, 흑사병, 백년 전쟁 등으로 봉건위기
  + 14~15세기 순수장원 설립
  + 15~16세기 영국 요우맨 계층 등장, 동유럽 2차 농노제
* 피렌느 가설: 유럽 세계의 발전과 지중해 교역의 관계, “지중해에서의 교역이 유럽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라는 가설.
  + 자본주의는 도시에섯 잉태, 생산이 아니라 원거리 교역에서 출발하였음.
* 11세기 이후 농업 생산력의 발전
  + 농업 생산력의 증대: 근면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발전된 도시와 교환경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제철법을 개선하여 양질의 쇠를 공급하고, 철제 농기구를 일반화해서 농업생산성을 증대시켰음)이 토대가 되어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었음.
  + 교역도시: 도시는 여러가지 경로로 발달하게 되는데, 주로 교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음. **동방교역**은 십자군 전쟁 이후로 발달하게 되었고, **북방교역**은 자치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발달하게 되었음.
  + 중세도시는 교환경제를 중심으로 하여 발달하게 되었는데, 주로 농촌에서는 도시에 식량을 공급하고 도시에서는 수공업 제품을 도시에 가내수공업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의 교환중심 경제활동을 하였음.
    - 서부 유럽에는 영주가 농촌에 거주하였고, 지중해 연안에는 영주가 도시 내에 거주하는 형태였으며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음.
    - 영주가 도시권을 부여하여 도시 시민에게 농노보다 자유로운 신분적 지위를 제공하게 되었음. 이를 통하여 영주는 시장세와 통과세의 수입이 생겼으며, 상인에게서 권리에 대한 대가 등을 통한 재정수입을 받았음.
* 11세기 이후 자치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음.
  + 도시 상인길드를 중심으로 하여 자치도시가 발전하게 되었고, 근대 부르즈아 계급의 선구자가 되었기도 하였음.
  + 자치 도시는 사법권, 행정권을 장악하였고 영주의 도시권에 대항하여 자치권 운동을 통하여 투쟁하였음.
* 동직자 조합(길드)의 발달
  + 길드는 대내적 평등+대외적 독점으로 구분함. “안으로는 평등하고 밖으로는 독점적인” 형태.
    - 쭌프트(Zunft)강제: 대내적 평등과 대외적 독점을 통한 협동조합 방식. 생산량과 고용 및 품질의 규제를 통한 대내적 평등 및 상호간의 배신 금지 조항을 유지하고 대외적으로는 조합가입을 중심으로 규제함으로써 독점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 장인의 전문적인 능력은 높아졌으나, 이후에는 분업분야의 생산효율성이 낮아지게 되었음.
  + 상인길드의 특징은 영주가 도시 내에서 걷었던 시장세를 지불하지 않고 상품을 매매할 수 있었던 특권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가지 상호부조적 관행 등을 누렸음.
  + 수공업자 길드의 특징은 장인으로만 구성되어 가부장적 질서(장인, 직인, 도제)를 가지고 있었고, 상인 길드와 대립을 하게 되었음.
* 원거리 교역의 발달: 농업생산력의 향상 & 유럽 사회의 안정과 이교도 세력(무슬림)의 축출
  + 동방교역은 베니스를 중심으로 하여 발달하였는데, 11~15세기 유럽 원거리 교역의 핵심이였고, 주로 피렌체(모직물)와 밀라노(금속, 가죽)등을 교역하였음.
    - 베니스는 십자군 이후 비잔티움 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비단과 향신료의 수입을 독점하게 되었고 후에는 흑해에 노예수출을 독점하게 되었음.
    - 제노아는 베니스의 라이벌로써, 영국의 양모를 의류(플랑드르)로 만들어 수출하게 도되었고, 동유럽과 지중해에는 목면을 수출하였음.
    - 동유럽에서 콘스탄티노플과 무슬림에는 광석, 목재, 양모, 은, 올리브 유, 노예, 기타 원자제 등을 **수출**하였고 동방으로부터는 후추, 계피, 육두구, 정향, 귀금속, 비단, 목면 등을 **수입**하였음.
    - 이들의 성공 요인은 지리, 십자군 전쟁을 통한 수송 및 금융 서비스의 발달 및 도시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성공할 수 있었다.
      * 16세기 대서양 시대의 전개와 함께 1453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하게 됨으로써 동방교역이 쇠퇴하였음.
  + 북방교역은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교역하였는데, 이들은 도시마다 거류지 등을 형성하여 살았음.
    - 러시아, 핀란드, 발틱해 동부 연안과 스칸디나비아 등을 통하여 원자재 등을 서유럽 공산품과 교환하였고, 사치품(양초, 호박, 와인 등)을 거래하기 시작하였음.
    - 이들은 주로 네덜란드와 영국 상인의 발트해와 스칸디나비아 진출을 방지하고, 뤼백과 함부르크를 연결하는 해로와 유틀란드 반도를 경유하는 육로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였음.
  + 내륙 교역에서의 정기 시장이 있었는데, 2~4주 혹은 6주 내지 시장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화폐와 금융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음. 그러나 상업의 일상화로 인하여 14세기 이후에 쇠퇴하였고, 16세기 이후 상품 및 증권 등의 거래소로 대체되었음.
* 봉건위기: 혹사병, 기후변화, 백년 전쟁등을 통하여 봉건위기가 일어나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가 위축되었음.
  + 전반적인 임금이 감소함에 따라 노동력이 감소하고 최종적으로 영주의 수입이 감소하였다. 이를 토대로 영주 간의 경쟁이 강화되었고, 장원과 농업조직이 변화되었다.
  +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현상이였을 뿐, 장기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 하지만 이들이 살던 땅을 중상위 계층이 버리고 도망감에 따라 토지 지배권이 악화됨에 따라 토지 지배권을 정비하고, 성문법을 도입하고, 정기 소작농을 도입함에 따라 계약관계가 발생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농민의 지위가 상승하였음.
* 각국은 농민들이 주축이 된 농민반란이 일어나서 고전장원이 해체되었음.
  + 영국은 농민반란이 일어나 농노제 폐지와 전국적 상거래 자유의 조건과 화폐 지대를 고정하고 폭동 참가자에게 관용하도록 하는 협상안을 제시하였음. 13세기 이후 고전 장원이 해체되어 영주의 잉여 착취가 대륙에 비해 심하지 않아 농민의 농업 잉여의 획득이 가능하였음. 16세기 이후부터는 부농과 빈농으로 양극이 분해되었고, 젠트리 계층이 부활하였음.
  + 프랑스은 농민반란이 일어나, 14~16세기 사이에 독립자영농민층이 성립되었고, 토지소유권이 만들어져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었음. 그리고 영주는 가지고 있던 토지를 농민에게 소작할 할 수 있도록 부여하였음.
    - 소작은 보통소작과 분할소작으로 나뉘는데, 보통소작은 ‘일정량의 화폐 또는 생산물 지대를 대여’ 하는 방법이고, 분익소작은 ‘생산물의 1/2~1/3을 지주가 농구, 사료, 가축 등과 사소한 자본을 대여함으로써 일종의 자본가적 경영을 하는 방법’ 이였으나, 분익소작이 일반적인 방법이였음.
    - 그러나 이들은 농업이 중심이 되지 못하였고, 상업적인 영농이 미발달 하였기 때문에 그리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음.
  + 동부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와는 달리 2차 농노제를 실시하였음.
    - 13~14세기부터 서부 및 동부 독일은 고전장원이 해체되기 시작하였음.
    - 동부독일은 14~15세기 이후에 고전장원이 해체되어 서북부 독일의 화폐 또는 생산물 지대 제도를 답습하게 되었고, 이후 15~16세기에 농노제로 복귀하였고, 영주가 농장을 직접 운영하는 직영제가 도입되었고, 해외시장을 겨냥한 상업적 경영을 시작하였음.
      * 독일의 농민저항이 미흡했던 이유는, 농민의 분산거주와 도시의 미 발달로 인한 농민들의 저항이 미흡하였음.

1. 금융 및 기업제도의 기원

* 교환의 근본적인 문제
  + 거래 쌍방 중 어느 한 쪽이 자신의 사후적 계약 이행 의무를 지님
  + 계약 이전에 의무를 지킬 것을 약속하여 상호 이득이 되는 교환 관계임을 인지시켜야 교환이 발생
* 교환에 수반되는 비용: 탐색비용, 협상비용, 이행비용 3가지가 있다.
  + 탐색비용: 잠재적 구매자와 판매자를 협상으로 끌어들이는 비용
  + 협상비용: 협상하는데 드는 비용, 거래는 가격+시기/장소+제품의 품질+결제 방식+…
  + 이행비용: 거래 계약이 협상대로 이행되게 하는 비용, 상업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공증인 및 법원을 통한 전문적인 해결을 할 수 있음.
* 근대 화폐의 기원
  + 화폐의 기능: 지불 수단, 가치 저장 및 측정 단위
    - 지불 수단: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제거
    - 가치 저장: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시간과 공간 모두에 적용됨과 동시에 청산 과정이 중요해짐
    - 측정 단위: 가치 비교를 용이하게 함
  + 11세기 이전에는 교환 경제가 침체되고 있었음.
    - 교회는 이윤만을 위한 상업행위와 대부업을 금지하고 있었음. 이는 “시간은 신의 것”이라 하여 거래의 대상이 아니였고, 반고리대법이 19세기까지 존재하였음.
    - 그리고 정당 가격 이론을 부여하여, 가격은 이를 표현할 뿐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였음.
  + 그러나 지역간 거래에서는 화폐가 쓰였었는데, 은이 중심이 되는 은본위제가 있었고, 11세기 잉글랜드, 노르만 정복 이후 무게단위가 화폐 단위가 되었음.
    - 1파운드(Pound, livre, lira) = 20 실링/수/솔리두스 = …
    - 1971년 2월 15일까지 존속되었음.
    - 그러나 국가 주조권 발달은 미흡하였음, 주조 기술이 위조 동전을 막을 만큼 발달하지는 못하였음. 이를 막기 위해서 귀금속 함량을 파악하여 위표를 구분하였음
  + 11세기 이후에는 교회의 구휼활동을 통하여 고리대 금지가 부분적으로 완화되었고, 상업상 수반되는 위험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허용하였음.
    - 상인의 문자 해독과 복식 부기법 교육을 14세기 후부터 시작하였음.
  + 상업활동의 중심은 이탈리아의 중심국가가 중심이 되어 만들게 되었음.
    - 13세기 초 환어음이 등장하였음, 미래 지정 기일에 환어음 소유자에 대한 지불을 약속하고 이를 신용, 거래 위험 혹은 지급 기간 등에 따라 판매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였으며 장거리 무역과 상이한 지역에서의 채무관계 청산에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이탈리아 상인의 북서유럽 거주를 촉진시켰고 이는 은행의 시초가 되었음.
    - 상인 은행가의 환어음 처리에서 예금 은행으로 발전하였음. 은행에 주화를 예금하고 은행권을 발급받거나 은행계정을 통하여 이체 거래를 하였음. 그리고 앞서 금속화폐의 주조 문제등이 생김에 따라 잡다한 종류의 주화를 대신할 수 있는 화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피렌체 플로린, 베니스 두카드가 금화를 주조하였음.
      * 악화 예금은 수취거부 또는 재평가후 국가에서 재주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100% 지불준비금과 함께 대출 업무가 없었음. -> 15세기 메디치 은행의 부활.
    - 메디치 은행은 앞서 언급한 은행의 업무뿐만 아니라 대부업을 병행하였고, 유럽 각지에서 교황청과 왕실을 상대하고 있었음.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이자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업을 담보로 하여 귀금속과 관세 및 조세 등의 징수권을 가지게 되었음.
      * 채권이 등장하였음, 토지 채권 및 창고보관증
      * 해상보험이 등장하였음, 12세기부터 등장하였고, 14세기 보험료는 화물가치의 10-15%를 받았음.
  + 정치 조직의 경쟁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졌고, 이는 인구 및 세수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제동원이나 세금 수입을 담보로 하여 대부업을 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강제동원을 하던 사람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실패하였음.
    - 이는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는데, ‘국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역과 상업 등의 법을 제정하고 의회의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 근대 기업의 탄생
    - 쏘시에타스: 육상경영 중심의 ‘무한책임’ 기업이였고, 파산하는 경우 수감되거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신의, 정직성 및 근면성이 필수적이였고 주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꼼빠니아: 13세기 피렌체에서 설립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주식을 발행하고 외부차입을 중심으로 운용하였는데,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하고, 차입자금은 유산책임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음. 이를 통하여 대규모 자본을 확층할 수 있었음.
      * 이자는 반고리대금법으로 인하여 선물로 가장하여 지급하였음.
    - 제노아 꼬멘다, 베니스 꼴깐짜: 선장을 포함한 일하는 모두가 투자하는 구조
      * 해상 교역방식이였음.
      * 선장이 자본주였음, 이들은 주로 신참으로 이윤의 25%를 가져갔음.
      * 자본주는 유한책임 (투자 자본만 손실, 자본주는 여러 꼬멘다에 분산 투자를 하는 방식이였음)을 지었음.
      * 모험상인이 자본의 1/3을 제공, 자본주가 나머지 2/3을 부담하는 방식의 쏘시에타스 마리스가 있었고 이윤 배분은 각각 1/2씩 하였음.
    - 베니스 마노아: 14세기, 원시적 형태의 합자 주식회사
      * 국가가 대형선박 또는 선단을 제공하고 항해의 안전을 보장하였음.
      * 자본주와 국가가 계약하였음, 선단 전체를 임대, 항해 책임자를 고용하고, 물품은 개별 구입 및 판매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음. 그리고 개별 선박을 24주(주식)으로 나누어 임대하는 방식도 병존하고 있었음.
      * 항해 1회 후 청산하였음.
    - 13세기 후 대서양 연안 국가에서 발전하게 되었음
      * 국가가 무역의 독점권을 부여한 독립적 상인의 결사체였음. 선단 구성으로 항해의 안전 및 수송비를 절감하였고 공동구매 및 판매의 이득을 누렸음.
      * 항구적인 조직이고 구성원이 직접 항해에 참여하였고 이후 동인도회사 형태로 발전하였음.
  + 상품 생산 기업이 등장함: 플랑드르, 라나이우올로, 드레이피어
    - 12세기, 플랑드르 지역을 중심으로 장인의 모직물을 가공하였음.
    - 생산과 판매의 관리방식인 선대제가 도입되었으며, 고품질의 양모와 염료를 수입해 필요한 자본을 투입하여 생산하였고, 원격지 거래에 따라 원료, 중간재, 상품 재고 등을 관리하였음.
    - 생산 자본가가 등장하여 생산 도구와 장비를 소유하였고, 장인을 고용하였음.

1. 지리상의 발견과 상업혁명

* 지리상의 발견
  +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전 시기의 상업의 중심 루트였던 동방교역에서 제외되었으나, 상업을 시작한 국가가 됨. 지중해 루트가 아닌 해상 루트를 발견하여 해상 루트를 사용하여 새로운 무역을 펼쳤음. 이들은 제노아 국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다.
    - 그리고 이들은 가톨릭종교 중심의 ‘종교적 팽창주의’를 펼쳤음.
    - 항해왕자 헨리케가 주도되어 인도항로를 개척하고, 광동(중국)을 개척하였음.
  + 인도양의 독점적인 무역권(제해권)을 장악하려고 하였음.
    - 말라카(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하여 몰루카제도, 필리핀, 일본, 중국 등에 진출하였음. 주로 향료(후추, 계피, 생강) 및 귀금속 등을 수집하여 아라비아 상인을 통한 향로 수입을 대체하였음.
  + 스페인은 앞서 포르투갈과 달리 대서양을 개척하였음. 스페인은 잉카, 아즈텍 문명 멸망을 시작으로 포토시 은광과 수은 채광법을 사용하여 귀금속을 생산하여 교역을 시작하였음.
    - 스페인은 금, 은, 사탕수수 및 노예를 중심으로 교역을 시작하였음.
* 기술적 조건
  + 천문 지리학 지식을 확대하여 무역풍을 통하여 무역풍 및 조류 등을 발견하게 되었음.
  + 나침반 사분위, 해도 등의 항해술이 발달하였고 지중해 갤리선에서 발전하여 이베리아 카라벨 선으로 조선기술이 발전하였고 돛을 지중해 삼각돛과 북유럽 사각돛을 결합하여 배를 생산하게 되었음.
  + 중앙타(물길을 타고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음.
* 경제적 조건
  + 16세기 이후 세계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음.
  + 이들은 인도항로와 대서양 항로(삼각무역)을 펼쳤는데
    - 인도 항로에서는 향로, 차, 귀금속 및 목연 등을 수입했고
    - 대서양 항로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는 금, 은, 상아 및 노예 등을 수입했고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는 설탕, 옥수수, 감자, 담배, 금, 은이였다.
* 자급자족적 봉건 경제를 파괴시킴
  + 봉건영주의 사치품이 수요 대중의 기호품 수요로 옮겨갔음.
    - 후추, 설탕, 차 등
    - 후추 가격이 하락하였음.
  + 스미스 가설과 대립되고 있음.
    - 스미스 가설: 원거리 교역의 영향을 받은 귀족의 사채비 소비가 봉건저 봉괴의 원인
  + 노예 무역: 막대한 이득을 남긴 한 분야
    - 16세기 약 28만명
    - 17세기 약 134만명: 광산 노동 중심, 1650년 경 아프리카 인구 1억명, 유럽 인구 1억명
    - 18세기 약 600만명: 사탕수수 농장 중심, 아프리카 인구 1억명, 유럽 인구 1억 4천만명
  + 가격 혁명
    - 신대륙으로부터 금과 은을 수입하였고
    - 물가가 상승하였음
      * 귀금속 가격이 하락(화폐 소재 가치 1/4)
      * 명목 임금이 상승하였지만 실질 임금이 하락하였고, 곡물가격이 상승하였음
      * 정액지대(거래 초기에 가격을 정하여 거래하던 방식)에 의존하던 영주 계층의 제정이 궁핍화됨.
        + 상대적으로 농민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됨
      * 각종 금융제도의 발전
        + 투기, 환거래, 보험 및 은행 등이 발전하였음

1. 중상주의와 근대 국가의 형성

* 중상주의: 중상주의 대 고전파 경제학
  + 중상주의: 부는 인간(사회) 외부로부터 유입된다는 이야기
    - 중상주의 경제학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부자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실용적인 학문이였음.
    - 초기 중상주의: 지금주의, 금과 은 즉 화폐가 유일한 부의 형태인 것 (금과 은은 화폐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런 것) 금과 은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이 행위는 부국하는 행위
    - 후기 중상주의: 금과 은의 함량에는 초기 중상주의와는 차이가 없었으나, 금과 은을 광산에서 채굴하는 것과 무역을 통한 차액을 걷어들이는 무역 차액주의가 생겨남, 그리고 국내사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는 보호무역을 펼쳤고, 재판매 장려를 통하여 해운업과 삼각 교역을 펼침.
    - 중상주의 경제 사상과 발전: 고전파의 노동가치설과 화폐수량설이 사상의 근본원천이였고, 이들은 구제도주의(국내사업 육성 정책, 부의 원천이 화폐에서 생산으로) 옮겨가는 사상이였음.
  + 고전파 경제학: 부는 인간이 스스로 생산, 노동
*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 중상주의 국가들!
  + 스페인: 금의 해외유출 금지(초기 중상주의, 그러나 수익 중상주의는 못됨), 왕실의 식민지 경영을 통한 민간의 상업과 수공업을 억제하였음. 남미 식민지 개척.
  + 포르투갈: 스페인과는 달리 동방교역을 통하여 수입한 향료를 독일 및 제노아 상인들을 통하여 서유럽을 통한 중계교역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그리고 이들은 푸거 가문이 은과 구리 후추를 사오는데 투자를 하고 가져온 은을 목재, 선박 및 직포물로 생산하는 과정을 거쳤음. 이들은 상공업을 억제하였고, 동남아 식민지를 개척하였음.
  + 프랑스: 17세기 루이 14세가 꼴베르 재상의 중상주의 후기시장 정책을 펼침. 동인도회사를 1644년에 설립하여 무역을 장려하였고, 왕립 특권 매뉴팩처 및 관세장벽을 펼쳐 국내사업을 보호하였고 캐나나 및 미시시피 강 주변을 차지하여 식민지를 확보하였음.
* 네덜란드, 잉글랜드
  + 네덜란드: 발전된 법률 구조와 소유권 구조를 통하여 사업을 펼쳤음. 네덜란드라는 국가는 처음에는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을 통하여 국가를 생성하는 것이였고, 14~16세기 사이에 부르고뉴 공작이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길드의 독점 제한’ 목적의 법을 만들어 저지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였음. 1500년 경 토지와 인간이 장원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고 외국 상인과 장인의 직접 거래 등을 통한 생산요소 이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고 거래비용을 낮추는 상업혁신정책이 법률로 제정되었으나, 효율적인 지식보호 체계는 별로 발달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지식산업 보호는 산업혁명의 발전시기에 크게 부각됨.)
    - 규모의 경제를 누렸다는 것, 자본규모를 국가단위로 커지도록 하였고, 공식적인 경영교육을 하고 표준적인 회계 방식으로서의 복식부기를 확산시켰음.
    - 시장을 넓히는 팽창 정책을 펼쳐,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던 아시아 지역(특히 인도네시아 지역, 자카르타)을 포르투칼로부터 축출하는 정책을 펼쳤고, 1624년 뉴 암스테르담(뉴욕)을 건설 하였음.
      * 이를 통하여 상품운송비용이 하락됨, 이들은 아시아항로를 통해서 수입한 향로 등의 수입품을 암스테르담을 통하여 저지대 국가 및 발틱해 국가로 수출하였다는 것임. (암스테르담은 유럽 전역의 물물 가격을 정할 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음.)
      * 플루트라는 새로운 해상운송선이 나왔고, 해적의 소탕과 감소 및 국제화 물량의 팽창과 해상보험이 발전하여 네덜란드가 주변 국가들로부터 팽창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네덜란드의 중계무역은 ‘일시적’인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작이 있음. 앞서 언급한 해적의 소탕 및 선박의 대형화는 각국의 자체 상선단을 건설하는 것과 품질, 수량, 가격에 대한 정보의 확산 등으로 대체제가 나왔다는 것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손해라는 것이다.
    - 금융시장: 네덜란드가 개인 또는 국가가 차입자와 대부자가 되어 거래하도록 하였고,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는 리스크가 큰 행위인 ‘장기채권’을 발행하였음.
      * 서유럽에서는 상업중심지에서 자본 시장이 발전하였음. 브뤼해 -> 안트워프 -> 암스테르담 순으로 발전하였음.
      * 단기자본시장(어음): 양도증서로 변화하였음. 1537년 네덜란드 전역에서 법으로 배서가 인정되었음 (소유자가 바뀔 수 있음.) 채무증서와 환어음의 수령은 증서 발행인의 평판에 따라 달라짐. (신용등급의 시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1609년 암스테르담 은행이 설립되었음. 네덜란드 정부가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되며, 그 당시 600플로린 이상의 환어음 지불은 반드시 암스테르담 은행을 통하도록 하였음.
      * 장기자본시장(정부의 채권발행): 강재 차입과 신용대부도 같이 남아있었고, 이 둘에 혼선이 있었음.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장기채권을 발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정부에 합리적인 재정수단을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네덜란드 자본시장의 효율성은 서유럽 화폐시장의 초기 중심지라는 것에서 비롯되었음. 이는 첫번째로 해외상업의 집중으로 자본시장의 형성과 확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네덜란드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탐색비용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로 네덜란드의 각종 제도의 발전으로 인하여 거래비용이 감소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 농업시장: 네덜란드의 간척지 조성을 위한 경작지대 확대를 통한 봉건위기와 혹사병을 극복하고자 하였음.
      * 간척지 조성을 통한 경작확대와 인구 감소로 인한 토지 간척의 유인성을 제거되었는데 15세기 전쟁, 기근으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었음. 이는 다시 7-10 에이커 경작 소농이 대다수였음.
        + 그러나 16세기 유럽 전역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사료와 환금장물이 폭넓게 도입되었음. 그리고 네덜란드가 국제시장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지역에 특화된 작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
      * 기술 발전의 산물이 아니라 ‘전문화’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산물이였음.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확립된 상황이였고, 농촌의 자유로운 노동자는 자신의 자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었음.
    - 섬유업: 유럽 전역의 교역과 상업팽창으로 인하여 농촌 재조업이 중요해졌음. 길드들은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에 반색을 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촌에서 주로 만들어나가게 되었음.
      * 도시상인들이 선대제를 통하여 상인들과 노동자를 중개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하여 제조 과정에 좀더 많은 자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음.
  + 잉글랜드: 잉글랜드도 네덜란드와 비슷한 변화를 겪기도 하였으나, 농업에서의 노동력의 변화가 있었다.
    - 정치적 변화: 의회의 인정과 조세 문제의 변화가 있었다.
      * 1485년 튜더가 장미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로 잉글랜드의 조세가 불안정했음. 이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원의 토지와 소유물을 몰수하는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이들에게서 엄청난 종교적 반항을 하였으므로, 비교적 반항이 적은 상인과 지주 계급을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돈과 정권을 교환하였을 것으로 추정.
      * 1600년대 스튜어트 왕조가 등장하여, 제정문제를 둘러싼 의회와의 잦은 분쟁을 가지고 있었다. 애드워드 코크는 왕에 권한에 대한 관습법 우위를 응호하고 있었고, 왕의 독점 허가권 및 배타적 교역특권에 대한 허가를 반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왕의 권환들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아 있었음. 162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왕이 각종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었고, 1630년대 찰스 1세 관세와 독점 특권을 이용할 수 있었음. 그러나 1688년 청교도 혁명 이후 의회없이 국가를 통치하려는 의도가 사라졌음.
    - 경제적 상황: 1688년 청교도 혁명 이후로 의회 없이는 국가를 통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유제산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16세기 농업의 수확체감과 급속한 인구증가를 통하여 토지가격의 상승과 국제무역의 확대를 통하여 양모가격과 양목업의 이윤을 상승시켰다. 이를 통해서 양모 생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것이고 많은 토지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살고 있던 사람들을 몰아냈을 것이고 이 운동은 1차 종획운동이라고 이야기한다.
      * 주식회사의 독점을 허용하고, 노동가치와 대양운송비용의 하락으로 인하여 신세계 식민화 편익이 상승하였고 1700년경 네덜란드와 세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 농업: 양모 수요의 상승으로 인하여 초지 남용의 통제가 심화되었음. 초지에서는 양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니까.
      * 그런데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야 했고 이 과정에서 ‘1차 종획운동’ 이 발생하였음. 이 과정에서 농민의 공동체적 권리가 약화되었고, 영주 직영지와 공유지가 목축지로 바뀌었음.
      * 이 과정에서 농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몰아냈을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아닐 것이다. 각종 폭력과 비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수많은 농민들을 몰아내게 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하여 농민의 농민분할지에서도 부의 집중이 발생하였음.
        + 이 과정을 통하여 시장 판매가능성의 차이와 토지비옥도 및 영농기술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였고, 상업적 영농과 임금고용자 고용을 통한 부농이 생겨나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16세기 전 기간에 걸쳐 무산자층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토지에서 추방되었고, 임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한 부랑인구가 대량 산출되었고 국가에서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였음.
    - 국가의 대응: 국가는 부랑인구를 범죄자 취급하여 엄청난 억압을 가하였다.
      * 1489년, 1516년 국왕의 종획금지법을 통하여 어느정도 시장을 잡는가 싶었지만 이것은 항구적인 조치가 아니였고, 이후 16세기 후반에서부터 18세기 까지 ‘빈민법’을 만들어 일을 하지 않는 인구에 대한 엄청난 조치를 취하였다.
      * 그러나 양모가격의 상승이 둔화됨에 따라 경작지의 감소율이 높아지게 되었고, 새로운 집약적 농업사업과 새로운 곡물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 휴경지가 감소하였거나 사라졌고, 이를 통하여 가축사료의 공급이 증가되었다
    - 상업: 13~14세기가 되어 영국의 견직물 생산이 발달하게 되어, 15세기 모직물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장려하기 시작하였음.
      * 플랑드르와 네덜란드에서 기술을 도입하였고, 자국에서 생산한 양모와 모직물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각각 금지하였음.
      * 1563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기술조례를 통하여 실질임금의 상승을 억제하고, 농업을 수공업자와 장인의 우위에 두고 길드의 감독권을 부여하였음.
      * 앞서 언급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기술조례를 통하여 농촌의 수공업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지는 못했음. 기술조례는 기존 산업에 국한되었고, 새로운 산업은 도제규칙을 피해갔음.
        + 그래서 제조산업이 농촌으로 이동하여 농촌에 부가 집중되고 요우맨 계층의 성장과 병행되었고 이를 통하여 농촌을 통한 시장거래의 수요가 생긴다는 것.
    - 선대제: 15세기 말~16세기 초 선대제를 통하여 자본주의의 기원이 됨.
      * 자본주의의 기원: 교환(상업, 도시)이 아니라 생산(농업, 농촌).
      * 상인이 농촌 가내수공업 소생산자에게 원료, 임금 등을 미리 지불하고 소생산자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였음.
    - 중공업: 중공업은 탄광업, 광산업, 철제조업의 증가로 인하여 발달하였음.
    - 소유권과 상업화: 중앙집중화 되어 있을수록 대규모(전국단위)시장의 사용 가능성이 열리는 것.
      * 과거에는 지역+베타적인 판매권 및 독점적인 길드권한에서 벗어나 개인의 혁신과 노력과 국왕의 강제력이 혼합되어 생산물 시장이 변화되게 되었음.
        + 양모를 모직물로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기술이 부족하였던 잉글랜드는 플랑드르 직조공 존 켐프를 비롯한 기술자들을 잉글랜드에 이주시키고 이들에게 직조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 이를 통하여 기존의 생산물시장과 요소시장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보호받았음.
      * 엘리자베스 여왕 말기부터 주식회사를 통하여 성장하고 시장의 힘을 점점 강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음. 그리고 17세기부터 제도가 변화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등의 활동을 시작함. 그리고 이를 통하여 1688~1695년 사이에 주식회사가 22개에서 150개로 늘어났음.
        + 사법체계의 본질적인 틀이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쪽으로 변화
        + 독점조례를 통하여 자발적 집단의 소유권을 강화시켰음
        + 커피하우스를 발달시켜 보험기업과 증권/상품 시장을 형성함
        + 금세공사 은행권을 발행하여 예금 은행가를 형성함
      * 앞서 언급한 네덜란드에 비해 잉글랜드는 지식 사용의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발명과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음. 혁신의 이득을 내부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변화시켰고, 17세기 특허법이 출현하여 이는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었음.

1. 산업혁명 (1): 영국 산업혁명의 전개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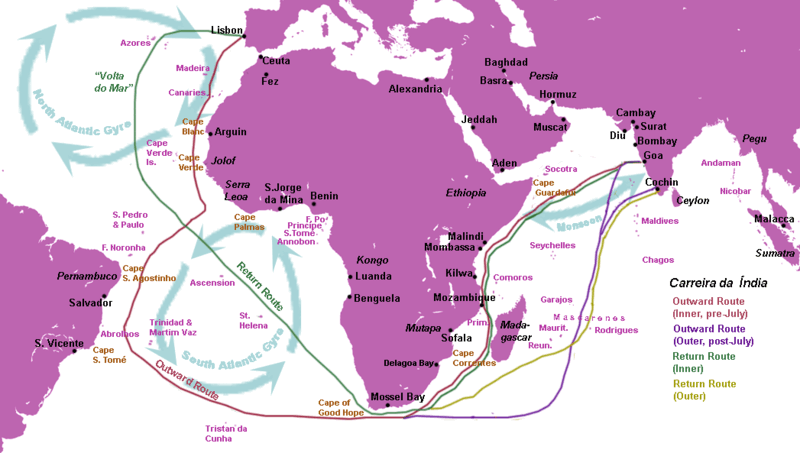
* 영국 산업혁명의 경과
  +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1830년 프랑스 문헌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84년 아놀드 토인비의 산업혁명 강의를 통하여 널리 사용되었음.
  + 이후 역사학자 애쉬튼을 통하여 1760~1830년 사이 ‘영국에서 벌어진 경제 산업 변화’의 견해가 널리 이해되고 있음.
  + 면직공업: 면직공업을 통하여 최초의 근대적 공장재로 이동하였음.
    - 이들은 아메리카 남부의 목화 플랜테이션을 발달시켜 이를 통하여 저렴한 목화의 수입을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이를 통하여 국내와 해외 수요 2가지를 다 얻음.
      * 국내에서는 모직물과 린넨의 대체 수요와 인도산 면직물의 수입금지로 인한 대체제로 성장하였고
      * 해외에서는 아프리카 노예의 노동복을 생산하는 수요를 만들었음.
    - 면직공업은 모직업에 비해 생산공정이 단순하고 길드 규제가 거의 없어 기술혁신에 유리하였음.
  + 면직 공업은 1773년 케이 방직기를 시작으로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음
    - 1733년 케이 방직기의 나는 북(Flying Shuttle) 방식의 기계식 장비를 만들었음
    - 1764년 제니 방직기를 통하여 섬세하지만 약한 실을 방직하는 장비를 만들었음
    - 1768년 아크라이트 수력 방직기를 통하여 강하지만 굵은 실을 방직하는 장비를 만들었음
    - 1779년 크롬튼 뮬 방직기를 통하여 케이와 제니의 방직방식을 합치고 수력방직기를 도입하였음.
    - 1782년 와튼 증기기관을 도입하였음.
    - 1785년 카트라이트 역직기를 통하여 19세기 섬유 산업은 증기기관 + 역직기가 면직산업의 중심이 되었음.
  + 제철업: 철광석 -> 선철 -> 강철의 순으로 수요가 증가하였음.
    - 면직공업의 기계화로 인하여 목제 방직기가 철제로 대체되었음
    - 운하 도로 철도 등의 토목공사로 수요 증가
    - 어느 단계에서나 높은 화력이 필요하였음
      * 목탄제련법: 목탄 + 풀무(수차 이용)
      * 코로스 제련법: 코크스 + 실린더 송풍(증기기관 이용)
    - 기계공업, 석탄산업, 제철업이 함께 발전
  + 교통 혁명: 수요가 증가하였고, 만들어졌다면 이를 운송한 교통 혁명이 필요함
    - 1750년 ~ 1770년에 통행료를 만들어 두고 통행료를 받을 때 차단기를 작동시키기 위한 턴파이크의 수요가 증가한 턴파이크 붐이 일음.
      *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가 아닌 개인이 토목공사를 통하여 도로를 건설하였음
    - 1780년 ~ 1790년에는 운하를 건설
    - 1820년: 철제 기선에서 대서양 항로로 증기기관을 사용함
    - 1830년 스티븐슨, 리버플 – 맨체스터 철도가 설치됨.
  + 1820년 ~ 1860년 영국 경제는 ‘세계의 공장’이 되었음
    - 수출 중 공산품 비중이 80%이상이였고, 수입 중 원료 및 식료품 비중이 90%이상이였음.
  + 산업혁명을 통하여 삶의 질이 증가하였을까?
    - 삶의 질은 실질임금과 생물학적 지표로 측정함.
      * 생물학적 지표: 신장, 기대수명, 생존 자녀 등
    - 1760년~1820년, 삶의 수준은 거의 변하지 않음
    - 1820년~1850년, 삶의 수준이 급격하게 향상
    - 단, 실질 임금은 논쟁적임.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는 상당하였고, 아동 노동 등의 문제가 남아 있었음.
* 농업혁명
  + 신농법: 17세기 플랑드르 지방에서 시작하여 18세기 영국 전국에 보급하였음.
    -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토질을 계랑하였음
    - 신 품종(감자, 알팔파, 담배 등)
    - 4년 주기 윤작을 하였음, 앞서 삼포제를 통하였을 때에는 휴년기가 존재하였음
    - 경작과 목축을 병행하였음
      * 클로버를 제배함으로써 지력을 유지하고 목초(건초)를 생산할 수 있었음
      * 순무 등의 근채류를 생산하여 식용 및 가축용 사료를 재배하였음.
    - 대규모 경작지를 견제하였음: **‘노는 땅을 없애자!**’
      * 현대에는 기계화가 되었음
      * 3포제에서는 휴경지, 공유지에서는 장애물이 되었음.
    - 이 과정에서 ‘2차 종획운동’이 벌어짐
  + 2차 종획 운동: 남아있던 개방경지를 없애자!
    -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였고, 곡물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게 되어 개방경지를 공물을 재배하는 곳으로 바꿈.
    - 나플레옹 전쟁을 통하여 대륙봉쇄령이 일어났고, 영국 내에서 필요하던 공물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함.
    - 이를 통하여 공물 생산을 위한 종획이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1차 종획 운동에 비해 합법 및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음.
      * 지주와 농업자본이 중심이 되었고, 정부와 의회가 지지를 하였음. (배상이나 환지 등을 시행하였음)
    - 19세기 초까지 18세기 말까지 공유지를 완전히 종획화하였음. 이를 통하여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에도 불구하고 90%이상의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음.
      * 이를 통하여 요우맨 계층(땅부자)들이 소멸하였음.
    - 그러나 곡물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단점이 있음.
      * 곡물법(1815년~1846년): 전시 가격의 일정 수준 이상일때만 수입을 허용하는 법 조항이였는데, 이는 농업과 지주에게 유리하였고 공업과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책이였음.
      * 맨체스터 지역 자본가와, 임노동자 계층이 중심이 되어 반곡물법 동맹을 형성하였음. (멘체스터 유나이티드)
* 경제적 자유주의
  + 정치와 경제의 구제도가 철폐되었음: 왕정에 의한 독점을 없앰
    - 부르주아적 국가기구가 확립되었음.
    - 중상주의적인 특권이 폐지
    - 상업활동, 임금, 물가 등에 대한 국가 통제 또는 개입을 철폐하였음
  + 영국: 신흥자본가 계증이 지주계층의 지배권을 약화시킴에 따라 새로운 노동자와 공장자본가들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었음.
    - 1830년대 초에 젠트리 계층과 대상인 계층과 남성만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고, 부패한 지역구가 사람을 선출하고 있었음.
    - 신흥 자본가들이 선거권을 얻게 되어 민주주의적 선거법을 개정과 곡물법을 폐지하였음.
      * 그러나 공장 노동자들은 선거권을 자지지 못했음. 이들은 저임금, 엄격한 노동 규칙, 장시간적인 노동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아동노동에 대한 문제도 가지고 있었음.
      * 노동자들은 1819년~1833년 사이에 5회에 걸쳐 제정되었음, 로버트 오웬이 큰 역할을 하였고 앞서 언급한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일정 이상 시간 이상의 노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만들어짐.
        + 그리고 이 법 조항은 차티스트 운동 이후 적용되었음.
    - 차티스트 운동: 인민헌장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참정권을 요구하였음.
      * 기존의 자산을 가진 남성들에 비해, 성인 남성들에게 보통 선거권을 요구하였음.
      * 하원의원의 재산자격을 패지하였고, 의원에게 봉급을 지급
      * 매년 선거
      * 운동은 실패: 이후 의회진출을 추구하는 정치운동인 노동(노동조합)운동이 펼처짐
    - 노동운동
      * 노동자 단결 금지법을 필두로 하여 이들은 맨체스터 폭동을 일으켰고, 1824년에 노동자 단결 금지법을 폐지하였음.
      * 1830년 전국통합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숙련노동자 중심으로 구성되었음. (오웬이 주도)
      * 1848년 이후에는 두가지가 변화하였음
        + 직종별 노조에서 미숙련 노동자를 포함한 산별노조 조합이 결성됨
        + 협동조합 운동을 통하여 소비조합, 농업생산물 조합이 생겨남
  + 자유무역 체제의 확립
    - 1795년 정주법(빈민 거주제한)을 폐지하였음
    - 1813년 동인도회사의 인도교역 독점을 폐지
    - 1821년 금본위제
    - 1823년 이후 원료 및 공업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및 보호관계 폐지
    - 1845년 곡물법 폐지
  + 식민지 확장: 아프리카, 호주,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및 인도를 통합함으로써 19세기 말 제국주의로 나아감.

1. 산업혁명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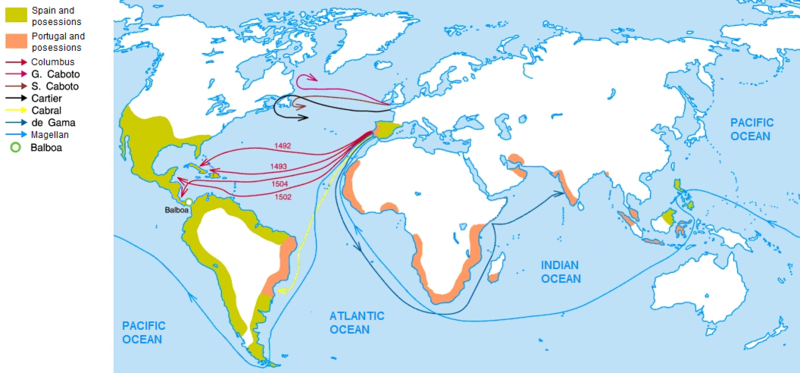
* 전통적인 관점
  + 산업혁명의 핵심: 기계제 대공업
  + 매뉴팩쳐: 16세기 후반~18세기 초중반 산업혁명 직전
    - 독립수공업자를 하나의 작업장에 모아 감독의 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함.
      * 이를 통하여 분업의 효과와 공동 작업장, 공동 도구를 사용하였음
    - 인간은 생산과정의 한 부분만 담당
      * 부분노동, 미숙력노동이 등장함
      * 노동도구의 전문화
    - 하지만 장인노동의 연장선 상에 있어 수공업적 숙련성이 완전이 사라지지 않음
      * 독일 벤츠는 엔진의 최초의 생산부터 최종까지를 한 장인이 생산함.
  + 산업혁명
    - 기계제 대공업과 임노동을 중심으로 대공장, 광산, 철도 대형 상점 등으로 나아갔음
    - 인간의 손에 의한 도구 사용에서 기계에 의한 도구 사용으로 대체됨
    - 동력기(인력, 자연력(수력, 풍력), 증기기관)의 혁신
    - 기계사용에 따라 숙련노동이 배제되고 미숙련노동이 확산됨
      * 다시 아동 노동과 여성 노동이 등장하였음
    - 지휘감독 기능과 노동의 분리가 강화되었음
      * 생산과정에서 인간 노동이 소외되었음
  + 전통적인 관점
    - 토인비 등: 형식적, 경쟁적. 비인격적 시장의 등장과 이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강조
    - 로스토우 등: 국민소득, 자본 축적 등 거시 경제의 성장을 강조함
    - 란데스 등: 기술 확산의 초점을 맞춤
* 수정주의와 반론
  + 1960년대 이후 수정주의
    - 성장률 추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혁명으로 부를 만큼 단절적이고 급진적이지 않았음
    - 영국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음
  + 크래프트와 할리
    - 영국 경제의 양적인 성장은 1830년대 이후에야 확인됨.
      * 1760~1860년 10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은 2배로 증가하였음
      * 하지만 시기별 성장률을 볼 때에는 그리 많은 성장률을 이륙하지 못했음
      * 산업혁명이 아니라 산업전환
  + 수정주의에 대한 반론
    - 왜 산업혁명의 성장률이 낮았을까?
      * 2부분 성장을 통하여 생산성 증가가 낮은 전통적인 산업과 생산성 증가가 비약적이였던 산업이 공존하였기 때문에 1인당 국내총생산이 낮을 수 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
      * 3단계 성장: 경제의 아주 작은 부분이 먼저 혁신을 이룰 때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방법이 확산되어 경제 전반에 이를 수 있고 신 산업 성장의 경험이 다시 전통적인 산업으로 확산되어 근대적인 산업으로 변화한다는 것.
* 영국의 차별성
  + 지리적 장점: 영국은 석탄이 많았고, 이를 통하여 관련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이전에는 영국의 산림이 감소하여 목재의 가격이 상승되게 되자 화석 연료를 사용하였음.
    - 1066년 이후 침략이 없었고, 해안 수송이라는 저렴한 운송 수단이 발달했었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었다.
      * 하지만, 지리적 장점은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니다. (섬인 아일렌드, 내륙 운송이 발달한 네덜란드가 산업혁명을 한 것은 아니다.)
  + 사회적 지위: 크롬웰 내전 이후, 영국은 부와 사회적 지위가 연결됨.
    - 사회적 지위는 사회정치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 걸친 것, 따라서 부의 축적을 통한 사회적 지위 향상은 강력한 사업 동기임.
  + 제도의 역할: 재산권의 확립
    - 1688년 혁명 이후 신흥 자본가,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중상주의적인 규제가 많았지만 대부분은 효과적으로 없애어 나갈 수 있었음. (예: 곡물법)
    - 과세 규모는 컸지만, 자의적이거나 약탈적이지 않음
    - 재산권 재도가 확립되었음 이는 사적 부의 축적과 지속적인 투자로의 유인점이 될 수 있음.
      * 프랑스와 스페인은 지배 계급이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하는 약탈국가였음.
    - 영국과 네덜란드는 중앙의 권력기구가 제도를 수립하는 역할을 하였음.
      * 다양한 행위자의 정치 과정을 통하여 정치제도를 형성하였음.
      * 사적 소유권의 확립에 더 친화적이며 나아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유도하는 길이 열렸음.
  + 반론: 단신적 제도관의 문제
    - 공식적 제도가 중요하다는 주장에는 제도가 경제적 압력에 따라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일관되게 적용되려면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함.
      * 왜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성장을 낮추는 제도가 유지되었을까?
      * 왜 근대 이전 사회도 나쁜 제도를 유지시키고 있었을까?
      * 나쁜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영국은 네덜란드의 많은 제도를 따라했으므로,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 왜 네덜란드는 쇠퇴하고 영국이 그 자리를 대신했는가?
  + 지적재산권의 문제
    - 네덜란드와 영국의 가장 큰 차이로 지적 재산권의 형성여부가 손꼽힘.
      * 지식의 사전 소유, 특히 특허가 기술 발전의 중요한 유인점이 됨, 그러나 이는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지지될 수 있는 주장이 아닐 수 있음.
      * 지식의 발전이 개인의 경제적 유인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특히 과학의 발전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짐. 산업혁명기 방직업의 주요 혁신은 특허로 큰 보상을 받지 못했음.
        + 의회의 보상금 지급이 지식 생산의 유인책 중 하나였음. 비슷한 예로 1754년 기술협회에서 특허를 받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만 상을 수여함으로써 신지식 개발에 명예를 부여.

|  |  |  |
| --- | --- | --- |
| 혁신가 | 발명 | 부의 축적 |
| 케이 | 직조기 | 특허권 요구로 제소됨, 프랑스에서 빈곤 속에 사망 |
| 하그리브스 | 제니 방적기 | 특허 불인정 |
| 아크라이트 | 수력 방적기 | 50만 파운드 유산, 특허료 수입 중단 후 재산 형성 |
| 크롬톤 | 뮬 방적기 | 특허 출원 시도 없음, 1811년 의회 5000만 파운드 보상 |
| 카트라이트 | 역직기 | 특허 유명무실, 1809년 의회 10,000만 파운드 보상 |
| 휘트니 | 조면기 | 특허 유멍무실, 정부 무기 계약으로 부 축적 |
| 로버츠 | 자동 뮬 방적기 | 특허보상은 개발 비용을 겨우 충당 |

* 기술적 우위
  + 영국의 기술적 강점은 작은 발명 (Micro-Invention)
    - 프랑스에 비해 기초과학 분야보다는 응용과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음.
    - 영국은 과학은 선도하거나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
      * 1700-1850년 출생한 응용 과학자와 엔지니어 498명 중 329명이 정규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음.
    - 영국의 기술적 성취는 직관적인 땜질과 지속적인 실험
  + 기술 인력
    - 시계 제작, 조선, 제철, 인쇄, 모직물, 광업
    - 새로운 아이디어를 설계도 모형 상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축적한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었음.
  + 정부의 지원
    - 신기술 채택에는 사회적 저항이 수반되기 마련.
    - 영국 정부는 그러한 저항을 넘어서 기술 혁신을 지원하였음.
      * 길드 등의 기존 조직을 뛰어넘어 기술 변화를 강제한 법안이나 규제를 추진하였음.
  + 개방 경제(자유무역)의 이점
    -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프랑스로부터 기술 유입이 두드러졌음.
* 경제적 조건: 1750년 이후 인구가 증가하였고, 시장수요 확대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
  + 생산요소: 농업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하여 곡물시장이 형성되었음.
    - 장물 선택이 시장의 영향을 받았음.
  + 전통적인 가사 활동을 시장 구매로 대체하였음.
    - 집안에서 직접 하던 활동을 시장 구매로 대체하였음.
    - 이를 구매하기 위한 화폐가 필요하였음.
      * 이 때문에 돈을 지불하던 일을 하던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었음.
    - 가사활동을 기준을 봤을 때 미시적 수준에서의 전문화가 진행되었음.
    -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으로 인하여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찾는 노동 절약적 기술을 필요로 하였음.
  + 경제 개방: 무역 자체가 산업혁명에 준 영향은 아직도 논쟁적임.
    - 특히 식민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식민지가 있던 다른 유럽 대륙 국가가 산업혁명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임.
  + 총평: 산업혁명은 혁명이라는 명칭을 가질 만큼 짧은 시간의 급격한 변화는 아니었음.
    - 지체와 퇴보도 있었지만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 향상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남.
    - 1750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 또는 경제 변화를 야기하였음.
      *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혁명적임.



Map of Portuguese Carreira da India



Explorations English